

# 아제르 여객기 추락·폭발에도 절반 생존...“비극 속 기적”

### 여객기 앞쪽 완파 뒷부분 멀쩡...꼬리 쪽 탑승자 생존한 듯 카스피 서해안 따라 북향하다 카자흐서 착륙 시도는 의문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2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하면서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로는 드물게 탑승객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하면서 한편에서는 ‘성탄절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당국 발표와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던 아제르바이잔 항공 J2843편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이 여객기는 비상 착륙을 위해 완만한 각도로 고도가 낮아지다 기체 중심부가 지면과 미끄러지듯 닿는다. 이어 여객기가 폭발하고, 화염에 휩싸이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사고로 3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탑승자 67명 중 29명이 생존해 병원에서 치료받

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이보다 많은 32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비행기가 추락하고 폭발까지 일어났음에도 탑승자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한 것을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비극 속 기적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중간과 앞쪽은 폭발해 완파됐지만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볼 때 생존자 상당수는 여객기 뒤편에 앉은 승객일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 구조 당국이 소방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신속히 추락 화재를 진압하면서 추가 폭발을 막았던 점도 생존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이유로 보인다. 추락 장소가 천만다행으로 카스피해 해안의 넓은 해변이어서 기체가 추락 후 건물이나 지상 시설물 등과 추가 충돌하지 않았다.



25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악타우 공항 인근에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의 잔해. 기체 앞부분은 폭발과 함께 완파됐지만 기체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파손되지 않은 모습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카스피해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던 여객기가 동쪽으로 기체를 돌려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카자흐스탄 악타우로 간 것은 의문점이다.

러시아 항공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비행 중 여객기가 새매와 충돌하

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는 것이 초기 조사 결과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초기에 원인으로 거론된 ‘새매

충돌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정확한 원인은 당국의 조사를 거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항공도 처음에 ‘새매 충돌설’ 설명을 내놓았다가 이내 철회

했다.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새매 충돌을 원인으로 특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교통 사건 담당 검사는 사고 현장에서 비행기 블랙박스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언론은 애초 목적이었던 그로즈니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목적지가 인근 마하치칼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하치칼라에서 여객기가 추락한 악타우까지는 직선거리로 300km 넘게 떨어져 있으며 카스피해도 건너야 한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전 러시아 남부 자치공화국인 북오세티야와 잉구세티야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며 과거에도 드론 공격으로 이 지역 공항들이 일제히 폐쇄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날 오전에 있었던 드론 공격과 이번 사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아제르바이잔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계속되는 가자의 비극...생후 3주 아기 추위에 숨져

### 냉기 ‘무방비’ 텐트서 저체온증...“이들간 신생아 최소 3명 사망”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 겨울을 맞은 가자지구에서 생후 3주 신생아가 성탄절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외곽 알마와시 난민촌에서 태어난 지 3주된 여아 실라 알파시가 밤사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실라의 아버지 마흐무드는 전날 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한 병원의 신생아 병동.

기온이 섭씨 9도까지 떨어지면서 바다에서 한기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라를 담요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냉기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가족이 머무는 텐트가 바람을 막아내지 못해 어른들도 추위를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실라는 밤사이 3번 울면서 깬다고 한다. 그 후 가족은 이날 아침, 몸이 뻣뻣하게 굳은 실라를 발견했다.

가족은 실라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생명을 구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한다.

칸유니스 나세르 병원의 소아병동 책임자 아흐메드 알파리는 실라의 사인이 저체온증이라고 확인했다.

알파리는 지난 48시간 동안 실라 이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아기가 적어도 두 명 더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어린이 1만 7천 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필립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유엔 자료를 인용해 가자지구에서 한 시간마다 어린이 1명씩 숨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의료진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현지 의료 시스템이 마비돼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리는 현재 운영 중인 가자지구 내 신생아 병동은 20%에 불과하며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용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공보 담당자인 로잘리아 볼렌은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은 “우리 공동의 책임을 명백하게 상기시킨다”며 “한 세대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권리가 잔인하게 침해당하고 미래가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성탄 전야에도 당첨자 못낸 美복권 다음번엔 1조 7천억원 ‘잭팟’ 터질까

당첨자 배출이 연일 불발되면서 1등 당첨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까닭에 연말에 미국에 불고 있는 복권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성탄절 전야인 25일(현지시간)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잭팟(모든 번호가 맞은 1등 당첨)이 나오지 않았다.

27일(현지시간) 밤으로 예정된 다음 번 추첨에서 잭팟이 나올 경우 받을 수 있는 당첨금이 11억 5천만 달러(1조 6천 800억원)로 치솟았다.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은 지난 9월 10일 텍사스에서 8억 1천만 달러(1조 1천 800억원) 규모로 나온 후 3개월여 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상금이 누적된 데다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린 복권 구매자들이 대거 몰리며 당첨금이 불어났다.

만약 27일 추첨에서 모든 번호를 맞힌 1등 당첨자가 나온다면 29년에 걸쳐 까닭에 연말에 미국에 불고 있는 복권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메가밀리언 복권 역사상 7번째로 큰 액수이며, 12월 당첨금으로는 최대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게임당 2달러(2천 900원)이며 잭팟 확률은 3억 2천 7만 5천 350분의 1이다.

한편,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추첨에서 잭팟이 나온 경우는 2002년 단 한 차례였지만, 지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당첨자는 뉴욕주에서 복권을 산 것으로 조사됐으나, 복권 분실이나 망각 등 이유로 수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